민주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재부상'

거취 놓고 정치권서 '설왕설래'

여권 중심 '10월 사퇴' 전망에 민주당은 부인
당 총선 채비 둘러싼 관심 사그라지지 않을 듯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상하며 이 대표 거취를 놓고 정치권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여권을 중심으로 이 대표가 추석 이후 사퇴하고, 10월에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친명(친이재명)계가 김두관 의원을 후임 당 대표로 밀 것이라는 구체적인 전망도 제기됐다.

민주당과 당사자는 모두 부인했지만 일부에서는 비대위 체제도 거론되는 만큼 민주당의 총선 채비를 둘러싼 관심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포스트 이재명'으로 거론된 김두관 의원은 지난달 31일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오는 10월에 이 대표가 사퇴하고 새 지도부를 뽑아 내년 총선에 대비하는 것에 민주당 의원들 40여 명이 합의했고, 친명계에서 새로운 당 대표로 김 의원을 밀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진행자의 질의에 "전혀 사실무근이고 금시초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 문제와 최근에 또 현안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아마 당 지도부에서 충분하게 대응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며 "그래서 10월 전당대회라는 가정은 전혀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지도부는 물론 다른 친명계도 근거 없는 소설이라며 펄쩍 뛰었다. 당을 흔들려는 여권의 모략이라는 의구심도 제기한다.

이 대표 측근인 한 의원은 "며칠 전에도 이 대표와 만나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는 듣지 못했다. 친명계 의원 40명이 합의했다는데 그런 사안을 내가 모를 리가 없다. 전혀 사실무근으로 황당하다"고 했다. 조정식 사무총장도 전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터무니없는 지라시 수준의 소설이다. 각자가 상상력과 소설은 자유지만 그렇게 이제 남의 당을 상대로, 소재로 해서 그런 소설 써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반면 가능성은 작지만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친명계가 당권을 비명(비이재명)계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플랜B'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경남 양산을이 지역구로, 지난 대선 경선 당시 레이스에서 중도 하차하고 이 대표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있다. 현실화한다면 김 의원이 친노계파 인사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도, 친문 진영도 아우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친명계 중 본인이 거론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짐작하기 어렵다"면서도 "당이 호남과 수도권 승리만으로 총선에서 과반이 넘는 1당이 되기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서 두 자릿수 정도는 확보는 해야(한다)"며 "중도층에 제가 소구력이 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부산·경남(PK) 쪽에서는 저에 대한 기대도 있더라"고 말했다.

'10월 사퇴설'과 '당권 이양 시나리오'에는 부인하고 나섰지만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민주당의 고민은 깊다. 당내에서는 이재명 없이도 안 되지만 이재명만으로도 총선 승리를 할 수 있겠느냐는 인식이 파다하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 이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도 공공연히 들린다.

이 대표 사퇴설이 고개를 드는 것은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는 가운데 당 지지율도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서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당별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29%였다.

민주당 지지도는 최근 20주 동안 30~37% 사이를 오르내렸는데, 최근 한 달간 32%→32%→30%→29%로 점진적인 하락세를 나타냈다. 현 정부 출범 후 최저 수준에 가깝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논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여당에 불리한 이슈가 쏟아져 나온 상황에서 받아 든 뼈아픈 성적표다. 정부·여당의 악재에도 야당이 반사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 당 안에서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수사망도 이 대표를 향해 바싹 조여들고 있다.

진술이 엇갈리고는 있지만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이 대표 소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이미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를 예고한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8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판결도 남아 있는 뇌관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만 1년이 되는 올해 9~10월 중에는 선고가 내려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중론이다.

한 중진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국민들 마음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취하지 못하는 원인을 얘기하다 보면 결국 이재명 체제에 대한 회의감, 의구심으로 귀결된다"며 "간판을 바꿔야 하는거 아니냐는 얘기가 많이 있는 건 사실이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전당대회보다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무게를 싣는다. 준비기간이 짧고, 지도부의 동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현실적이라는 판단이다.

한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지 않고 비대위 체제로 하면 된다는 의견도 상당하다"며 "이재명은 당 대표 유지하고,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자는 것이다. '문재인 대표-김종인 비대위' 카드로 승부를 건 적이 있지 않느냐. 권한 위임해서 총선을 치르면 된다. 누구 이름으로 치르냐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정읍시의회, 창의적 문화예술 도시 실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 의원 연구단체인 지역특화 문화예술 연구회와 지역 내 문화예술 단체 대표들이 문화예술이 일상이 되는 정읍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지역특화 문화예술 연구회는 최근 정읍문화원과 정읍예총, 정읍시립미술관, 수제천보존회 등 문화예술 관련 기관과 단체 대표 및 시 관계자 10여 명과 함께 문화예술 단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지역 문화예술계가 겪고 있는 행정상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며, 시민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정책 개발과 시민 중심의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또 정읍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 자원을 보호·발전시키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문화 발전을 위한 인재 육성 및 관련 인프라 확충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정읍=김대환기자

장수군의회, 지역 교육시민 사회단체들과 간담회 열어

장수군의회(의장 장정복)가 지난달 26일, 의회 상임위원회실에서 장수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장수군의회 전의원 및 행복을 일구는 장수교육네트워크 등 6개 단체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들 단체는 인근 시·군의 면단위 중학교 통폐합 문제가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관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며, 장수지역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므로 지금부터라도 지역내에서 민·관·학이 함께 소통해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지난달 31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새로운 전북 포럼에 김관영 도지사가 KAIST 배현민 창업원장을 초청해 '연구에서 창업으로'란 주제로 특강을 듣고 토론을 가지고 있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연구에서 창업으로'… 새로운 전북 포럼

김관영 도지사 · 도청 직원들 참석 열띤 토론 이어가… 배현민 KAIST 창업원장 특강도

김관영 도지사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문가 초청 특강과 토론 등 직원들과 함께 공부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전북도는 지난달 31일 '7월 새로운 전북 포럼'을 개최, 김관영 도지사가 아침 7시 30분부터 8시 50분까지 도청 중회의실에서 부지사, 실·국장 등 간부 공무원과 관련 출연기관장 및 직원 70여 명과 함께 '연구에서 창업으로'라는 주제로 공부하고 열띤 토론을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KAIST 배현민 창업원장 특강, 토론 및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김 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지난번 카이스트에 가서 배현민 교수님을 만나 뵙고 말씀을 나눠보니 최근 카이스트에서 학생들이 석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과 연구와 창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전북이 살 길은 경제를 살리는 일인데 몇가지 트랙이 있다. 이미 창업해서 돌아가고 있는 기업들을 잘 돌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새로운 대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고 우리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이 창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 돕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다섯 번째 포럼 주제를 '창업'으로 선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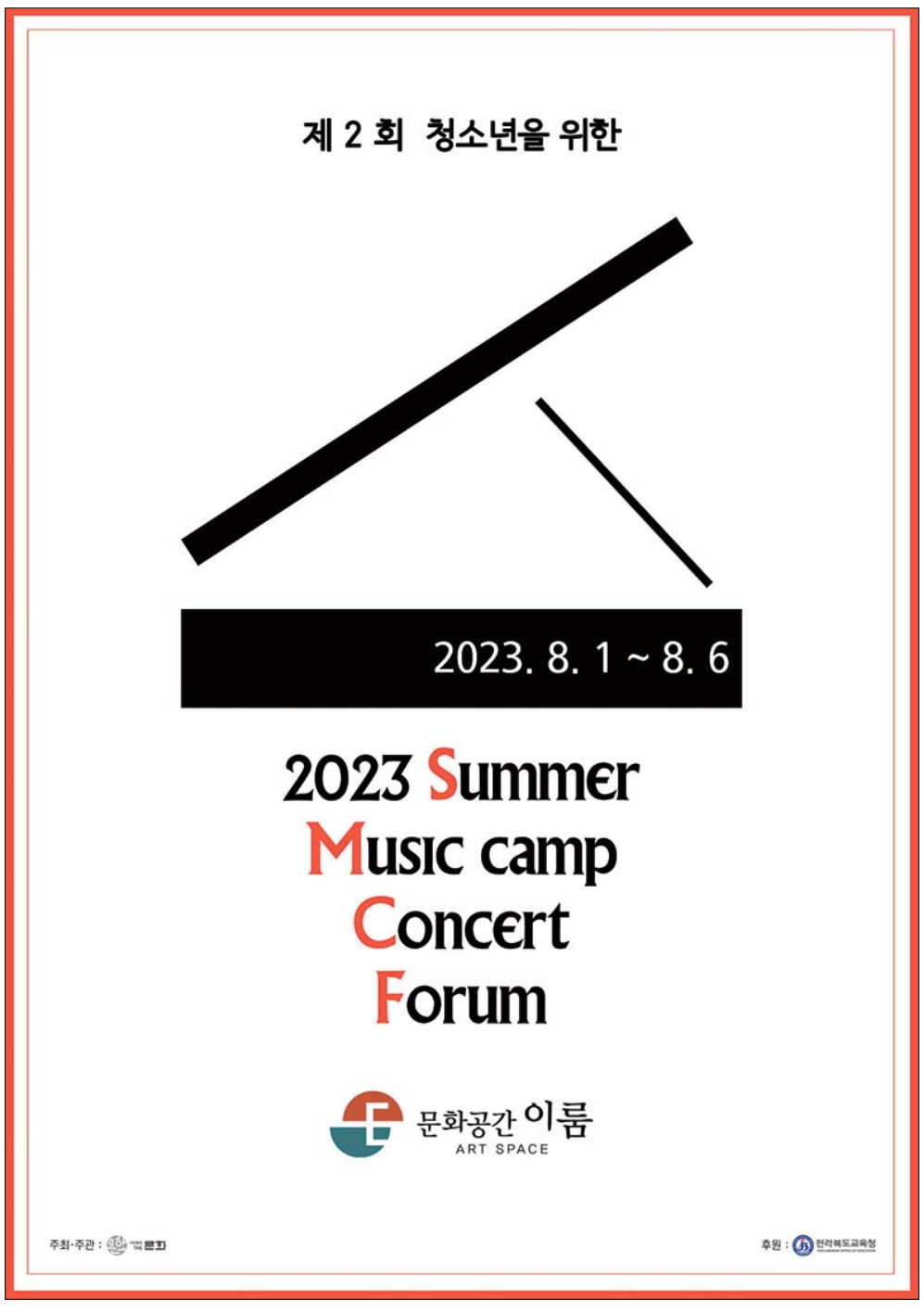
또한 "그동안 20여년 동안 전라북도는 창업펀드 약 2,000억이 조성 되어 있었는데, 지난 3월에 1조로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으며, 믿기지 않는 목표이지만 해보려고 하며 1조원 펀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북도에서도 1,000억원 정도 출자를 해야한다.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하지만 좋은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강 강사로 나선 KAIST 배현민 창업원장은 '연구에서 창업으로'라는 주제로 열띤 강의를 진행했다.

배 원장은 "기술은 창업을 통하여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며 국가경쟁력 제고와 소득 상승을 위하여 딥테크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기술사업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카이스트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휴대용 뇌영상 장치와 같은 딥테크를 활용한 창업이 대표적 사례이며 이와 같은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카이스트 개발 기술의 활용범위, 기술과 경영의 결합을 통한 창업 성공을 위한 카이스트의 해법 등 다양한 내용의 질의 응답이 진행됐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매월 '새로운 전북 월례 포럼'을 개최해 인공지능, 바이오, 신산업, 일자리·경제, 농생명, 문화·관광 기타 분야별 최신 이슈에 대한 전문가 특강과 토론을 통해 직원들의 시야를 넓히고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